



<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⑦>

노조의 재정투명성, 어느 정도인가?

1. 노조 비리의 유형

① 조합비 유용비리 : 조합비 유용비리는 노조집행부가 조합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로서 가장 흔하게 발생. 기념품 등 조합원에게 나누어 줄 물품을 조합비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결탁하여 대금을 과대 계상하거나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챙기는 수법 등이 대표적임.

② 조합비 이외의 재정관련 비리 : 주택조합을 결성할 목적으로 모은 주택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용자측이 제공한 복지기금, 또는 파업 등에 대비하여 적립한 투쟁기금이나 파업기금 등을 유용하는 유형임. 주로 연맹이나 대기업 노조에서 많이 발생함.

③ 복지시설 운영관련 비리 : 노동조합이 소비조합, 복지회관, 자판기 등을 운영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며, 이 역시 주로 대기업 노조에서 일어나는 비리임.

④ 회사와의 담합으로 인한 비리 : 회사에 대한 종업원의 불만을 억제시키거나 노사분규를 회피할 목적으로, 노조간부에게 돈을 주거나 각종 특혜를 베푸는 유형의 비리임. 이러한 담합으로 인한 비리는 노조운영이 비민주적이고, 권위적인 집행부가 장악하고 있는 노조에서 흔히 발생함.

⑤ 권력형 비리 : 권력형 비리는 일부 노조간부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리로 근로조건이 좋고 종업원이 많은 대형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남. 노조 간부가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거나 취업브로커에게서 돈을 받은 뒤 회사에 압력을 넣어 채용시켜주는 취업비리가 대표적임.

2. 노조 비리 발생원인

① 노조재정의 미공개 및 투명성 결여 : 현행 노동조합법에 기초하여 예산.결산 및 기금의 설치.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(또는 대의원대회)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.

②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: 모든 노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도록 되어 있지만 노조규모가 커질수록 회계감사의 전문성 결여로 형식적인 회계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.

③ 비민주적 노조운영 :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노조의 예산이나 집행에 대한 정보를 일부 집행부가 독점,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편의나 지원을 받고 회사와 담합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짐.

④ 노조간부의 노동귀족화 : 노조간부들이 노동귀족화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빠져 사익을 추구하기 쉬운데 특히 간선제로 노조간부를 선출하는 노조에서 부적격한 인물이 장기 연임함으로써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음.

3. 노조 비리 근절 방안

① 노조재정 자료 투명성 확보 : 노동조합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. 또한 조합원의 정보공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정보접근권 보장. 회계감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노조집행부의 조치도 의무화

② 회계감사시스템 작동장치 마련 : 회계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며, 형식적인 회계감사를 방지하는 장치를 규약에 마련.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노조와 상급노조에 대해서는 외부공증제도 도입 검토.

③ 업무감사 실시 : 회계감사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노조간부의 업무활동에 대한 견제장치 확보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업무감사를 실시.

④ 노조의 재정자립 도모 :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출 합리화, 수익사업 전개,

전임자수 축소 및 기금 적립, 조합비 인상 등을,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를 제고, 조직체계의 효율화, 조직의 슬림화, 조직합병 등을 추진 .

⑤ 도덕성 회복 및 제도적 검증장치 도입 : 노조간부의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비리관련 노조간부는 노동운동진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. 노조간부에 대한 사전사후검증시스템의 도입도 검토.

【참고자료】

김정한, 노동조합 재정비리의 원인과 향후 과제, 노동리뷰 2005년 6월호
노동법학회, 노동조합 재정투명성 확보방안,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1.11